

"엄마, 불완전한 세상도 참 따뜻한 거죠?"

정상 이데올로기의 물결에 침투하는 불완전한 가족상을 주목하며

김하연

내면화된 폭력에 대항하는 투쟁의 목소리

상근이 소원은 도라에몽이 살아 돌아다니는 거고, 미연이 소원은 현관문을 열면 디즈니랜드가 있는 거라는데, 내 소원은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다.

김개미 작가의 동시 「짜의 일기」 전문이다. 한 아이의 일상이 다른 아이의 머나먼 소망으로 발현되는 아이러니함이 보이는가. ‘정인이 사건’이 발발한 2020년 후반부터 2021년 전반은 방치된 아이들이 수면 위로 오를 수 있었던 해다. TV 속의 연예인 가족이 비취온 ‘정상 가족’ 프레임의 이면에는 일상적 폭력과 차별이 도사리는 현관문이 늘 숨어 있

었다. 그런데도 아이를 내세우며 우후죽순으로 등장하는 예능 프로그램은 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요, 참 행복해 보이죠. 이게 바로 이상적인 '정상 가족'입니다.

방송인 사유리가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했다. 사유리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남성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한 자발적 비혼모다. 첫 여성 슈퍼맨이 된 그녀의 출연은 오랜 시간 '정상' 프레임에 갇혀온 방송 미디어에 큰 화두를 던졌다. 일부 차별주의자들은 청와대 국민 청원과 KBS 시청자 권익 센터에 출연 반대 글을 올리며 프로그램의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비혼 출산이라는 '비정상'적인 방식이 마치 '정상'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였다. 사실 말이 우려지, 현존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무시하고 배제하는 '폭력'이었다.

가라사대 '폭력'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삶은 곧 바이러스와의 투쟁이지만 어떤 이들의 삶은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이전부터 이미 보이지 않는 '폭력'과 투쟁 중이었다. 결과적으로 공영방송 KBS에서 8년 만에 여성 비혼모를 슈퍼맨으로 인정한 것처럼 일반화된 틀에서 벗어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이제야' 서서히 생겨나고 있다. 그간 육아 예능은 '정상 가족'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성 소수자, 입양 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비혼주의자 등 '비주류' 가족을 조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면화된 폭력에 대항하는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의 탄생은 열린 시청자로서 굉장히 달가운 일이다. 감사하게도 2021년은 주목할 만한 육아 예능이 몇몇 있었다. 그들을 훑어보며 여전히 만연하는 '정상' 이데올로기의 물결에 대항하는 불완전한 가족상을 주목한다. 더불어 새로운 프로그램의 탄생을 시청자에게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들여다보고 육아 예능이 갖는 문제점의 본질까지를 이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불완전한 이들의 눈부신 도약

진부한 육아 예능의 불모지 속에서 2021년 7월 피어난 JTBC의 <용감한 솔로 육아 - 내가 키운다>(이하 <내가 키운다>)는 여러모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 프로그램이 다른 육아 예능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차별점은 평범한 가족으로 출연하는 연예인이 그간 미디어가 주입하던 '정상 가족'이 아니라 이혼 가정의 '싱글맘'으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정상 가족'이 또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를 전시하는 고리타분한 쇼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던 차였다. <내가 키운다>의 제작진은 굳이 '싱글맘'을 메인으로 선택한 프로그램의 취지를 밝히며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정에 공감과 응원의 장이 되어주고자 마련한 모임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한 연대를 통한 진심이 시청자에게 닿은 걸까. 그 프로그램은 첫회에 분당 최고 시청률 5.2%를 기록하며 새로운 육아 예능의 성공적인 지평을 열었다. 그들이 시청자의 관심과 호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누구도 조명해 주지 않았던 '싱글맘'의 출현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기도 하지만 단지 그것뿐만은 아니다.

<내가 키운다>의 '싱글맘'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키워드는 '용기'다.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첫 번째 용기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육아 관찰기 사이사이에 속마음을 고백하는 '싱글맘'의 단독 인터뷰 장면이 적재적소에 혼합된 포맷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인터뷰는 각각 다른 이유로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된 개인 서사적 배경을 수용하고, 형태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딸 로아를 홀로 키운 지 2년 차가 된 배우 조윤희는 로아가 장난감으로 역할 놀이를 하다가 '아빠'를 언급하는 장면에서도 비어 있는 가족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그 단어조차 꺼내기 부담스러워하는 한부

모 가정도 있을 테지만, 적어도 이 프로그램에서만큼은 그들의 불완전함이 불편한 역할로 치부되지 않는다. 당연한 수용성을 통해 한부모 가정의 아이는 함께 살지 않는 아빠 또는 엄마에게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상기하며 ‘정상 가족’이 결코 보여줄 수 없는 (보여주고 싶지도 않아 했을) 부분까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장면은 시청자의 일반화된 인식을 확장시켜 주는 귀중한 지표가 되고, 같은 처지의 한부모 가정의 시청자에게 또 다른 용기가 된다.

이어서 불완전함을 상쇄할 그들만의 해피 엔딩을 보여주고자 하는 두 번째 용기는 일상적인 육아 관찰형 포맷으로 나타난다. 이 부분은 다른 프로그램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보이지 않던 소수의 출현은 때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법이다. 아들 신우와 이준이를 홀로 키우는 3년 차 ‘싱글맘’ 김나영은 속마음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사실 되게 숨고 싶었어요……. 그런데 숨을 수 없잖아요.” 〈내가 키운다〉가 보여주는 가족의 형태는 불완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정심을 가미한 ‘억지 감동’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다. 그저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공감하며 때로 눈물 짓고,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일상을 보여줄 뿐이다. 일부 차별주의자들이 ‘비정상’이라고 우려했던 그들의 실상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했다.

육아 예능의 황금기를 끝추세운 MBC 〈아빠! 어디가?〉가 2013년 처음 방영된 이래 아이를 대상으로 한 수많은 가족주의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왔지만 공교롭게도 사회가 공고히 세워 온 일반성의 틀을 깬 가족의 형태를 전면으로 다룬 예능 프로그램은 없었다. 대부분의 육아 예능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정형화된 틀에서 출발하고 결론적으로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행복한 가족’임을 강조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가족애로 귀결된다. ‘정상’ 가족의 틀에서 벗어난 다른 가족의 형태

는 일반화된 시대의 창에서 지워지기 쉬웠다. 그러한 구태의연한 흐름 속에 ‘용기’ 있게 침투하는 <내가 키운다>는 변해가는 시대에 적합한 성공적인 도약을 이뤄냈다고 볼 수 있다.

타자화를 벗어난 ‘타자 되기’

2020년부터 방영 중인 채널 A의 <금쪽같은 내 새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획일화된 단란한 가족상을 분쇄한다. 육아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일반인 부모에게 베테랑 육아 전문가들이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며 내부적인 문제를 교정한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아동 전문가 오은영 박사가 해결사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방영됐던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연장선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내가 키운다>가 불완전한 가족이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는 휴머니즘적 스토리텔링을 시사했다면 <금쪽같은 내 새끼>는 다양한 형태의 현실적인 가족이 겪는 불완전함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다문화 가정과 입양 가정은 물론이고 그중에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폐 스펙트럼을 보이는 아이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두 아이의 정서를 염려하는 싱글대디 등 <내가 키운다>가 다뤘던 ‘이혼 가정의 싱글맘’이라는 테마에서 몇 걸음 더 확장됐다. 더불어 전문가가 솔루션을 제시하는 상담 프로그램의 특성상 출연자는 자신의 고정적인 역할을 벗어나 간접적으로 타자가 되는 경험을 한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로 이웃 간에 안녕을 묻는 것이 부재한 사회에서 소통을 통해 내면화된 무의식적 폭력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한다.

8월 말에 방영된 <금쪽같은 내 새끼> 63회에서는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손톱과 발톱을 물어뜯는 아이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런데 출연자가 살펴본 VCR 속의 아이는 아빠가 부부싸움으로 언성을 높일 때마다 손과 발에 입을 대고 있었다. 오은영 박사는 초긴장 상태에 휩싸인 집에 불안을 느낀 아이가 손톱과 발톱을 물어뜯는 최선의 자기방어를 통해 스스로를 위로한다고 분석했다. 부모는 솔루션을 통해 자신의 내면화된 폭력을 마주하고 행동에 가려진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그들의 솔루션이 ‘아이 되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은영 박사는 부모와 맺었던 애착 패턴이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애착 이론을 설명하면서 아이 아빠의 어린 시절을 묻는다. 그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투박한 할머니 손에 자라 애착을 느껴본 적이 없던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자신의 아이에게도 사랑을 주는 데서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처럼 <금쪽같은 내 새끼>는 완벽한 ‘타자 되기’ 소통으로 비로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윤후가 복스럽게 짜파구리를 먹고 벤틀리가 사랑스럽게 웅알이를 하는 관찰형 육아 프로그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쪽같은 내 새끼>를 보며 힐링을 느낀다는 2030 세대의 시청자가 다수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표명된다. 시청자는 리얼리티가 넘쳐나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까지 돌아보고 ‘그래서 그랬구나’ 또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자유로운 ‘타자 되기’에 도전한다.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타자와 만나서 의사소통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를 묻기도 한다.

여태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가 지배했던 육아 예능은 완전한 가정 내부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혐오를 은연중에 은폐하기 십상이었다.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힐링을 무기로 사랑스러운 아이만 내세우는 육아 예능이 판을 치는 ‘불편한 단란함’ 속에서 낯것의 리얼리티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프로그램은 귀할 수밖에 없다.

힐링(healing)인가, 셀링(selling)인가

한편으로는 육아 예능에 대한 비판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시청자로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다양화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내면화된 폭력을 인지할 기회가 생긴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육아 예능을 다룰 때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우려의 여론은 늘 공존해 왔다. 비판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표층부터 단계적으로 살펴보자. 육아 예능은 왜 열풍을 일으켰는가. 미숙하지만 사랑스러운 아이의 출현과 육아 앞에서 되려 자신의 미숙함을 발견하며 함께 성장해 가는 부모의 서사는 유쾌하면서도 감동적인 그림을 그려내기 쉽다. 귀여운 아이들을 보며 힐링하는 시청자는 기꺼이 ‘랜선 이모’ 또는 ‘랜선 삼촌’이 되며 장르적 팬덤을 형성하기도 한다. 문제는 아이의 순진무구함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상의 날것을 끄집어내는 리얼리티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육아 예능은 제작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실성이 부여되는 관찰 예능의 포맷을 사용한다. 그런데 아이들의 예쁜 모습만을 편집해서 방송하는 육아 예능을 진짜 리얼리티라고 볼 수 있을까. 대중을 사로잡기 위한 힐링의 대상으로 소비되는 아이들은 상품화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 위험은 더욱 화목하고 이상적인 가정을 연출시키며 앞에서 거론한 ‘정상 가족’ 프레임을 부추긴다.

앞서 언급한 두 프로그램이 아이를 다루는 방식은 기존의 육아 예능과는 다소 남다르다. <내가 키운다> PD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이들의 예쁜 모습만 담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이가 우는

모습과 때를 쓰고 넘어지는 모습도 다 프로그램의 이야기다. 다른 육아 예능의 고정관념을 깨는 작업을 하고 있다.” 육아 예능 속의 아이들은 ‘귀엽고 예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미숙한 것이 당연한 존재’로 비쳐야 한다. <내가 키운다>에서 김나영은 아침을 먹는 데 한 시간이 넘는 시간을 소모한다. 일어나자마자 집을 어지르는 신우를 진정시키라 칭얼대는 이준이의 밥을 먹이라 정신이 없다. 그녀는 이른바 ‘멘붕’이 온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기도 한다. 싱글맘이자 워킹맘이기도 한 양육인의 전쟁 같은 아침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이상적이지 않은 육아 리얼리티를 보여준다. 이러한 장면은 앞서 PD가 말한 대로 연예인 가족의 모범적이고 단란한 단면만 비추는 육아 예능의 일반화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

비(非)연예인 아이가 등장하는 <금쪽같은 내 새끼>는 또 어떠한가. 유사한 구성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와 비교해 보면 아이를 소비의 대상이 아닌 한 인격체로 대하는 제작진의 태도가 돋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 권리를 보호하며 아이를 실명 대신 ‘금쪽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또래 아이의 목소리를 녹음한 AI 스피커로 인터뷰를 진행한다. 게다가 “무개념 반항아 태양”, “최강폭군 혜성” 등 아이를 문제아로 가두는 듯한 자극적인 키워드를 붙였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와 다르게 <금쪽같은 내 새끼>는 “소통 방식의 미숙함으로 오해받는 금쪽이”, “이유 없이 동생들을 괴롭히는 속을 알 수 없는 금쪽이” 등 아이를 어른의 언어로 만든 틀에 가두지 않고 오로지 문제가 되는 행동만을 지적한다.

오늘날의 시청자는 다양한 가정의 ‘금쪽같은’ 아이를 위한 육아 예능을 필요로 한다. 아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No-Kids-Zone)’과 어린이의 미숙함을 폄하하는 신조어인 ‘ㅇ린이’ 같은 혐오적 언어가 만

연한 사회에서는 더더욱. ‘힐링(healing)’이라는 말로 예쁘게 포장해서 이상적인 ‘정상 가족’을 ‘셀링(selling)’하는 데 치중된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이목을 끄는 건 성공할지 몰라도 고정 시청률을 유지시키는 데 한계가 생길 것이다. 더불어 육아 예능의 다양화가 막 생겨나는 이 시점에서 아이의 권리를 존중하는 미디어의 세심한 태도는 필수적 요건이다.

확장된 육아 예능, 시각적인 환상을 깨부숴라

눈의 망막에는 ‘맹점(盲點)’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신경세포가 존재하지 않아서 어떤 이미지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은 웬만하면 일상생활에서 맹점의 존재를 자각하지 못한다. 우리의 시각 체계가 빈 공간을 ‘시각적인 환상’으로 채워 바라보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토틀아본 것처럼 일상생활을 가장한 육아 예능 프로그램은 시청자에게 이 ‘시각적인 환상’을 이상적인 현실인 양 주입해 왔다. 현존하는 다양성을 배제하고 환상 속의 일반성만이 실재한다고 믿는 리얼리티 방송의 ‘매직 아이’는 ‘정상 가족’만을 이상적으로 취급하는 내재적 폭력을 초래한다.

육아 예능은 이제 그만 환상을 깨부숴야 할 때다. <금쪽같은 내 새끼>에서 오은영 박사가 한 아이에게 ‘금쪽 처방’(금쪽이에게 내리는 맞춤형 솔루션)을 내리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아이가 겉으로 표현하는 수많은 문제의 이면에는 늘 진짜 이유가 숨어 있고, 부모가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오직 겹질에 있는 문제를 없애려는 데에만 몰두한다고. 육아 예능이 여태 주목하지 않았던 ‘비주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다양성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그들을

지우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가. 환상을 깨부숴야 비로소 ‘진짜’ 리얼리티가 드러나는 법이다. 방송은 곧 시대를 비추는 창이라는 책임감을 지니고 불완전한 타자와 소통하는 리얼리티를 끊임없이 정면으로 마주하고 담아내야 한다. 이 세상의 아이들은 도라에몽이 살아 돌아다니길 바라는 ‘상근이’와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어 하는 ‘미연이’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정상 이데올로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현관문 너머로 저마다의 삶을 구축하는 불완전한 가정까지 따뜻한 시선으로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방송의 역할이다.

이 순간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자니 1990년대에 사용됐던 MBC의 로고송 하나가 떠오른다. “엄마, 세상은 참 따뜻한 거죠?” 옥구슬처럼 맑고 옛된 목소리의 어린아이가 부르던 짧은 멜로디였다. 그렇다, 아이러니하지만 세상은 전대미문의 바이러스가 퍼지고 부정부패가 비일비재하는 불온함이 섞여들어다 서로 더불어 살아가기에 참 따뜻하다. 다만 2021년을 지나는 지금 미디어를 접한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엄마, 불완전한 세상도 참 따뜻한 거죠?” …… 이 질문에 마땅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하며 방송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열린 시청자로서 다양한 가족상을 지지하는 프로그램이 늘어나기를 대망한다.